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비온뒤갬 26/31℃
15(日) 흐리고비 26/30℃
단기 4343년 (음력 7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52호 1판 2010년 8월 14일 토요일

'정보 양극화'

스마트폰 가입 200만명 넘어서…중·장년층 소외

75%가 수도권에 집중…지역별 정보 격차도 심각

광주에서 투자증권 회사에 다니는 강모(45)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신세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으로 젊은 고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친한 직원에게 '특별과외'까지 받으며 사용법을 익히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강씨는 "다들 가지고 있어서 구입하긴 했지만 다루는 게 어렵다"며 "과거엔 수첩만 사용해도 고객을 관리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 때문에 소외받는 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젊은 층에 비해 중·노년층은 적응하지 못해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정보격차)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디바이드'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격차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젊은 세대와는 달리 디지털기기 조작에 서툴수 밖에는 없어 스마트폰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대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스마트폰 가입자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국내 가입자는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 올 연말에는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들은 스마트폰으로 버스나 지하철 운행정보, 주변 맛집 정보, 속보 뉴스 등을 챙겨보는 것은 기본이다.

길거리 등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나면 휴대폰으로 찍어 즉석에서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트위터·미투데이·요즘 커넥팅 등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조작에 서투른 중·노년층이나 저소득층 등은 스마트폰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용법도 복잡하고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또 아이폰 가입자 분포를 통해서도 연령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양극화 현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KT에 따르면 아이폰 가입자 75%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가입자(지난 4월 50만명 기준) 중 서울 거주자는 44.6%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거주 비율은 13.1%에 달했다. 애플 아이폰 사용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경남·경북·충청은 모두 4.9~8.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가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청장년과 노령층, 남성과 여성 등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칠우 전남대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는 "앞으로 스마트폰 뿐 아니라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PC, 전자책 등 다양한 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관심이 없으면 소외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막기 위해 제조사들도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IT기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맡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나갈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고속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여름밤 목포의 새명소 목포 시민과 관광객들이 13일 밤 목포시 신흥동 평화광장에서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물을 뿜어내는 '바다분수 공연'을 감상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경 2차관에 박영준 국무차장 차관급 23명 인사

11명이 영남지역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과 외청장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프로필 2면〉

그러나 차관 내정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이 승진 기용됐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는 안상근 가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시 교육감, 교과부 2차관에 김창경 전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행정안전부 1차관 김남석 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안부 2차관에 안양호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용걸 기재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영입됐고 농림부 1차관에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2차관에 정승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장이 기용됐다.

병무청장에 김영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자리를 옮겼고, 농촌진흥청장에 민승규 농림부 1차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출신지역별 분포는 영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과 충청, 강원, 서울 지역 출신이 각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영남 편중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처별 출신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실장급 후속 인사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건평·서청원·이학수 등 2493명 8·15 특사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광복절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 91명과 불우한 처지의 외국인 수형자 등도 혜택을 받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주요 인사로는 노건평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 22명도 함께 사면됐다.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의원 등 3명이 특별감형되며, 논란이 됐던 서 전 대표는 심근경색증, 돌연사 위험 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잔여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키로 했다.

이학수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보이스피싱 고개 ▶3면 특별한 백화점 강좌 ▶4면 쌍암공원 탐방 ▶5면 Books ▶8·9면 통신업계 태블릿 PC 전쟁 ▶13면 양용은 연속 우승할까 ▶14면